

“유소년 종목 체험 기회 제공 중요”

김관영 도지사, 민선2기도·시군체육회장과 간담회 생활체육 활성화 위한 학교 클럽 등과 연계에 공감대 김 지사 “아태 마스터스 국민적 참여 고양 노력” 당부

김관영 도지사가 민선2기 체육회장 시대를 맞아 도, 시군 체육회장과 소통 행보에 나섰다. 전북도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는 전북도와 도·시·군 체육회장의 첫 상견례 자리로 새로 시작하는 민선2기도·시·군 체육회장 당선 축하하고 체육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관영 지사는 “2023 전북 아태마스터스대회 성공개최를 위해 도·시·군체육회가 대회 준비는 물론 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고조시키기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지사와 체육회장들은 “체육회와

각 종목단체가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학교 클럽 등과 연계해 유소년들에게 다양한 종목을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세대별 맞춤형 홍보전략을 활용해 생활체육 종목의 흥미를 불러일으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데 입을 모았다. 김관영 지사는 “민선2기 체육회장 시대를 맞아 전북체육의 발전을 기대하는 도민들이 많다. 지도자와 선수들이 운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도민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자”며 “체육 발전에 늘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7일 전주 침어우에서 열린 전북도, 시·군 체육회장 간담회에 김관영 도지사와 정강선 전북체육회장을 비롯한 시군 회장들이 간담회를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아·태 마스터스 성공을 기원합니다’

전북은행, 대회 공식 후원사로 참여 | 서플라이어 등급 따라 주요 권리 제공

(주)전북은행(은행장 백종일)이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 공식 후원사로 참여한다. 7일 대회 조직위원회(위원장 김관영)에 따르면 이날 전북도청 4층 회의실에서 (주)전북은행과 대회 공식 후원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관영 위원장, 백종일 은행장, 이강호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이에 따라 (주)전북은행은 2023년 6월 30일까지 대회 공식 후원사로 함께하게 되며, 공식 서플라이어 등급에 따른 주요 권리가 제공된다. 조직위원회로부터 공식 서플라이어(Official Supplier)의 지위를 부여받고, 대회 지적재산권인 심볼마크, 마스코트 및 공식 후원사 명칭 사용권, 행사장·장차장식물·미디어·공식 인쇄물 광고권 대회를 연계한 마케팅 권리 및 후원사 확대 권리를 갖게 된다.



7일 전북도청 4층 회의실에서 김관영 도지사와 백종일 전북은행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 공식 후원 협약식이 열렸다.

아울러 지역 연고 대표은행으로서 앞으로 조직위원회에서 대회 공식 후원사를 모집하는데 있어 지역기업 후원 유치에도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조직위원장인 김관영 도지사는 “지

역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을 해 준 (주)전북은행이 공식 서플라이어 등급으로 공식 후원사로 참여해 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가 역사적인 대회로 개최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에 백종일 은행장은 “전라북도 대표 은행으로서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역 대표 은행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는 생활체육인의 국제종합체육대회로, 2023년 5월 12일부터 20일까지 9일간 세계 각국에서 1만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전라북도 일원에서 펼쳐진다. /장은성기자

‘김제 생활체육 동호인들 모여라’

2023 김제시 동호인리그 10월까지 ‘대장정’

김제시체육회(회장 한유승)가 주관하는 2023년도 김제시 동호인리그가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간의 대장정에 돌입했다. 김제시 동호인리그는 작년까지 9개 종목(게이트볼, 배드민턴, 배구, 야구, 축구, 축구, 테니스, 탁구, 볼링)이 운영되었으나 올해부터는 당구 종목이 추가 편성되어 10개의 정식종목으로 운영된다. 김제시체육회는 10개 종목 134개 클럽 약 2,900여명이 참여해 동호인들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생활체육에 대한 참여 기회 확대와 건전한 여가선용의 기



회를 제공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중 종목별 상위 클럽은 11월 4~5일 장수군 일원에서 펼쳐지는 ‘전라북도 동호인리그 왕중왕전’에 김제시를 대표해 참여하게 될 예정이다. 한유승 체육회장은 “동호인들이 부상없이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마음껏 펼쳐 일상생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더 많은 동호인들이 1인 1종목씩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기자

WBC대표팀, 한신 상대 연습선 승리... 9일부터 열전 돌입

한국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대표팀이 마지막 연습경기를 승리로 장식했다. 한국대표팀은 7일 일본 오사카 교세라돔에서 열린 한신 타이거즈와의 연습경기에서 7-4로 역전승을 거뒀다. 전날 오릭스 버펄로스와의 연습경기에서 2-4로 패했던 한국은 이날 타선의 응집력을 앞세워 승리했다. 한국은 오는 8일 결전의 장소인 도쿄돔에서 훈련을 한 후 9일 호주와의 1라운드 첫 경기를 시작으로 열전에 돌입한다. 제1회 WBC에서 4강, 2회 대회에서

연습경기서 7대 4로 역전승
준우승에 올랐던 한국은 3~4회 대회에서 1라운드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이번 대회에서 명예회복을 버리고 있다. 이날 테이블세터는 토미 현수 에드먼과 김하성이 맡았고 이정후와 김현수, 박병호는 클린업 트리오를 구축했다. 나성범과 최정, 양의지 강백호가 6번부터 9번 타순에 배치됐다. 한국은 0-0으로 맞선 3회초 양의지의 첫 안타로 포문을 열었지만 득점으로 연결하지 못했다. 끝으로 한국의 두 번째 투수 구창모

는 3회말 4안타를 맞고 일본에 2점을 내줬다. 심기일전한 한국은 4회 김하성과 이정후의 안타로 만든 1사 1, 3루 찬스에서 박병호의 내야땅볼로 1점을 만회했다. 한국은 5회 선두타자 최정의 안타와 양의지의 연속 안타로 무사 1, 3루 기회를 잡았다. 이어 강백호의 적시타로 동점을 만들었다. 이후 김하성의 병살타 때 3루주자 양의지가 홈을 밟아 3-2로 역전에 성공한 후 상대 투수의 폭투를 틈타 1점을 추가했다. 한국은 8회 김혜성의 솔로 홈런에 힘입어 5-2로 달아났다. 대표팀의 연

습경기 첫 홈런이었다. 이후 박건우의 1타점 2루타, 오지현의 1타점 내야안타로 추가점을 올렸다. 일본은 8회 정우영을 상대로 사토 데루야키의 솔로 홈런 등으로 2점을 추격했다. 한국은 9회를 무실점으로 막고 경기를 끝냈다. 선발 박세웅은 2이닝 무실점 호투를 펼쳤고 세 번째 투수 윤태인은 3회말 2사 2, 3루에 등판해 5회까지 무실점 피칭을 선보였다. 6회 마운드에 오른 김윤식은 1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았고 이의리와 정우영, 김일중, 정철원이 효과적으로 아어던졌다. 이지영은 6번부터 포수 마운드를 쓰고 투수진과 호흡을 맞췄다. /뉴스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

전주매일 캠페인